

효율적 멘토링을 위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연계 방안 연구

송용준* · 이상학** · 정도범*** · 황영현****

I. 서론

현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심지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정부 관련 기관들은 엘리트 타깃 위주의 민간 업체와는 달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정도범, 2015).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온라인을 통한 사업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http://creativekorea.or.kr>)이다.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창조경제타운은 2013년 9월 말 오픈되었다(박선영, 2013).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2만 6천여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4천여 건에 대해 지적재산권 확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오프라인 컨설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타운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온라인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우수한 아이디어 대해서는 후속 지원을 통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도 있다(정철환, 2015; 창조경제타운, 2015.9).

창조경제타운이 온라인상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멘티·멘토 간의 만남과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그 결과로 미래부는 2014년 2월말 서울 광화문에 최초의 정부주도 오프라인 스타트업 실험실인 드림엔터(<http://dreamenter.or.kr>)를 개소했으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 주요 18개 지역에 정부-지자체-대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한 오프라인의 창조경제혁신센터(<http://ccei.creativekorea.or.kr>)를 순차적으로 오픈하였다(김원배, 2015).

이와 같은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과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멘토링과 오프라인 멘토링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용준, 2015).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별도로 제공되는 창조경제타운의 온라인 멘토링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오프라인 멘토링에 대한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온·오프라인 멘토링 연계 필요성을 연구하고,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멘토링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외부의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세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송용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실장, 02-3299-6142, bmdesigner@kisti.re.kr

** 이상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02-3299-6084, leesh@kisti.re.kr

*** 정도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02-3299-6235, dbchung@kisti.re.kr (교신저자)

**** 황영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 02-3299-6161, younghunh@kisti.re.kr

II. 본문

1. 창조경제타운의 온라인 멘토링 분석

1) 전반적인 온라인 멘토링 만족도 분석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서는 2가지 종류의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첫째로, 아이디어 제안자가 멘토링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가 멘토링 프로세스를 제공했으며, 둘째로는 매월 30명 내외의 총괄 멘토들이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에 진단 멘토링인데, 그 결과로 선정한 일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온라인 멘토링의 보완 방안으로 요구된 오프라인 멘토링을 직접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멘토링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창조경제타운에서는 2014년8월부터 11월까지 총 2회 이상 로그인한 9,006명의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총 1,136명(멘티 955명, 멘토 181명)의 답변을 분석하였다(창조경제타운, 2015.1).

창조경제타운 멘토링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10점 척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만족(7~8점) 수준이며 우수 아이디어 선정 등을 포함하는 진단 멘토링 7.23점, 멘토와의 대화를 통한 전문가 멘토링 7.0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조경제타운 멘토링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6.66점으로 세부 만족도에 비해 낮아서, 전체적인 온라인 멘토링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창조경제타운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만족도(10점 척도)

구분	사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진단 멘토링	265	7.23	8.00	2.490	1	10
전문가 멘토링	278	7.03	7.00	2.714	1	10
전반적 만족도	287	6.66	7.00	2.546	1	10

2) 멘티 입장에서의 온라인 멘토링 만족도 분석

661명의 멘티 입장에서 멘토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6.71점으로 중위수 7.00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2> 창조경제타운 멘토에 대한 만족도(10점 척도)

구분	사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만족도	661	6.71	7.00	1.856	1	10

멘티 입장에서의 멘토링 서비스 개선 사항 1순위 분포는 멘토 지정의 어려움 293명(44.33%) > 멘토의 전문성 123명(18.61%) > 멘토의 불성실한 답변 70명(10.59%) >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46명(6.96%) > 멘토의 답변 지연 44명(6.66%) > 기타 30명(4.54%) > 멘토의 무응답 17명(2.57%)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1+2 순위 분석 결과 멘토 지정의 어려움 368명(55.67%) > 멘토의 전문성 256명(38.73%) > 멘토의 불성실한 답변 202명(30.56%) >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142명(21.48%) > 멘토의 답변 지연 114명(17.25%) > 멘토의 무응답 64명(9.68%) > 기타 56명(8.47%)의 순이었다.

<표 3> 멘토링 서비스 개선 사항[멘티 입장]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순위
멘토 지정의 어려움	293	44.33	75	11.35	368	55.67	1
멘토의 전문성	123	18.61	133	20.12	256	38.73	2
멘토의 답변지연	44	6.66	70	10.59	114	17.25	5
멘토의 불성실한 답변	70	10.59	132	19.97	202	30.56	3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46	6.96	96	14.52	142	21.48	4
멘토의 무응답	17	2.57	47	7.11	64	9.68	6
기타	30	4.54	26	3.93	56	8.47	7
무응답	38	5.75	82	12.41			
전체	661	100.00	661	100.00			

정리해보면, 이용의 어려움과 온라인을 통한 상호 소통의 불편함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 멘토 입장에서의 온라인 멘토링 만족도 분석

반면, 475명의 멘토 입장에서 멘티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6.83점으로 중위수 7.00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4> 멘티 만족도(10점 척도)

구분	사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만족도	475	6.83	7.00	1.656	2	10

멘토 입장에서의 멘토링 서비스 개선 사항 1순위 분포는 아이디어 내용이 부실(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 등) 166명(34.95%) > 분야가 맞지 않아서 멘토링이 어렵다 153명(32.21%) > 멘티가 멘토의 능력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해서(오프라인 멘토링 등) 52명(10.95%) > 멘티의 자질 부족(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30명(6.32%) >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25명(5.26%) > 답변을 보냈으나 멘티가 무응답 17명(3.58%) > 기타 13명(2.74%)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1+2 순위 분석 결과 아이디어 내용이 부실(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 등) 284명(59.79%) > 분야가 맞지 않아서 멘토링이 어렵다 215명(45.26%) > 멘티가 멘토의 능력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해서(오프라인 멘토링 등) 116명(24.42%) > 멘티의 자질 부족(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111명(23.37%) >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75명(15.79%) > 답변을 보냈으나 멘티가 무응답 47명(9.89%) > 기타 33명(6.9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 멘토링 서비스 개선 사항[멘토 입장]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순위
분야가 맞지 않아서멘 토링이 어렵다	153	32.21	62	13.05	215	45.26	2
아이디어 내용이 부실	166	34.95	118	24.84	284	59.79	1
멘티가 멘토의 능력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해서	52	10.95	64	13.47	116	24.42	3
멘티의 자질 부족	30	6.32	81	17.05	111	23.37	4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25	5.26	50	10.53	75	15.79	5
답변을 보냈으나 멘티가 무응답	17	3.58	30	6.32	47	9.89	6
기타	13	2.74	20	4.21	33	6.95	7
무응답	19	4.00	50	10.53			
전체	475	100	475	100			

정리해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표현이 어려울 수 있고, 초기 수준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멘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이용 및 상호 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오프라인 멘토링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창조경제타운에서의 오프라인 멘토링 활용 분석

1) 창조경제타운 오프라인 멘토링 만족도 조사

창조경제타운에서도 기존 온라인 멘토링 외에도 KT, SKT 등 대기업의 사업팀장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멘토링도 받는 기업매칭데이 등의 오프라인 멘토링 행사들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전문가 멘토링에 대한 필요성은 10점 척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7.66점으로 앞에서의 만족도 평균 보다는 상당히 높게 조사되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오프라인 전문가 멘토링 필요성(10점 척도)

구분	사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필요성	1,136	7.66	8.00	1.835	1	10

창조경제타운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10점 척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만족(7~8점) 수준으로, 오프라인 교육(시제품 제작 지원 기관 설명회 및 상담회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 7.53점, 멘토 대상 교육(타운홀미팅), 오프라인 멘토링(기업매칭데이, 오프라인 그룹 멘토링) 7.38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행사 종류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는 멘토링, 멘티 교육, 멘토 교육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오프라인 교육 만족도(10점 척도)

구분	사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오프라인 교육	704	7.53	8.00	1.823	1	10
멘토 대상 교육	694	7.38	7.00	1.846	1	10
오프라인 멘토링	707	7.38	7.00	1.844	1	10

정리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온라인 멘토링 만족도 6.66 보다는 훨씬 높게 조사되었지만 그 필요성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오프라인 멘토링에서도 다소 불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창조경제타운 2015년도 집중 멘토링 사례 조사

창조경제타운에서는 오프라인 멘토링에 대한 높은 필요성 및 만족도 조사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제안된 아이디어 중 매월 4% 내외의 유망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1개월에 걸쳐 명확한 수준 진단 및 집중적인 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의 타운 지원 사업 이해도 증진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집중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1월부터 3월까지 3회까지는 창조경제타운의 온라인 멘토 풀에서 12명의 전문가 멘토단을 선정하여 직접 운영까지 했는데,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4월부터는 전경련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전문가 멘토단을 지원받

이 집중멘토링을 운영하였다. <표 8>에서는 그 만족도 조사를 위해 매월 참석한 30명 내외의 멘티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멘토단 구성 및 운영을 진행한 초기 3회 평균이 5점 기준에 4.29점이며, 전경련의 멘토단 지원을 받은 경우 4.53점으로 5.6%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0점 만점에 8.88점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작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만족도보다는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표 8> 집중멘토링 만족도(5점 척도)

설문 내용	자체(3회)	전경련(5회)	향상율
강의 내용이 알기 쉽게 설명되었습니까?	4.50	4.56	1.3%
강의 자료가 강의내용과 잘 연결이 되었습니까?	4.34	4.55	4.8%
강의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4.00	4.37	9.4%
참석을 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4.28	4.57	7.0%
개별 멘토링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4.36	4.62	5.9%
전체	4.29	4.53	5.6%

정리해보면 아이디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체화된 멘티에 대한 집중적인 오프라인 멘토링은 만족도가 높으며, 보다 전문적인 멘토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3. 온오프라인 멘토링 비교 및 효율적 연계 전략

1) 온라인 멘토링과 오프라인 멘토링의 비교 분석

이제까지 각각 살펴본 온라인 멘토링과 오프라인 멘토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비교해 보면 <표 9>와 같다. 시간, 공간, 비용 측면에서는 온라인 멘토링이 효율적이지만, 이용자 만족도에서와 본 것과 같이 이용 편의성, 답변 지연, 상호 소통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오프라인 멘토링에 대한 이용자 니즈가 동시에 존재한다.

<표 9> 온라인 멘토링과 오프라인 멘토링 비교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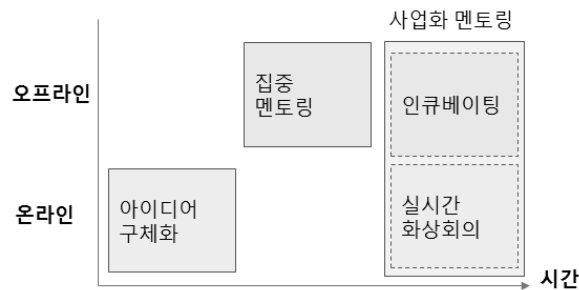
구분	온라인 멘토링	오프라인 멘토링
1. 시간	24시간 이용 (단방향)	특정 시간 약속 필요
2. 공간	공간 제약 없음	회의 장소 확보 필요
3.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높은 비용(교통비 별도)
4. 편의성	상대적으로 이용 어려움	상대적으로 이용 쉬움
5. 답변 지연	발생 가능	없음
6. 상호 소통	어려움	쉬움

이와 같이, 온라인 멘토링과 오프라인 멘토링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상호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멘토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온·오프라인 멘토링 연계 전략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는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상용화 단계의 구체화된 제품까지 다양한 수준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안된다. 이와 같은 천차만별인 대량의 아이디어 전체에 대해 처음부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오프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에는 오프라인 멘토링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수준이 다른 대량의 아이디어에 대한 멘토링 초기 단계에는 비용 효율적이고 상시 접속 가능한 온라인 멘토링을 이용하여 1차로 필터링하고, 선별된 아이디어 대해서는 집중적인 오프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멘토링 전략이다. 그 이후의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한 인큐베이팅(보육)과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1).



(그림 1) 단계별 온오프라인 멘토링 연계 전략

창조경제타운이 지속 가능한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 및 데이터 오픈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 및 온라인 멘토링 이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다(정도범, 2014).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창조경제타운의 온라인 멘토링 프로세스를 외부 오프라인 멘토링 기관에 오픈하여 상호 보완적인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함께 제공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단계로서 온라인의 창조경제타운과 오프라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링 프로세스의 상호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4.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온오프라인 멘토링 연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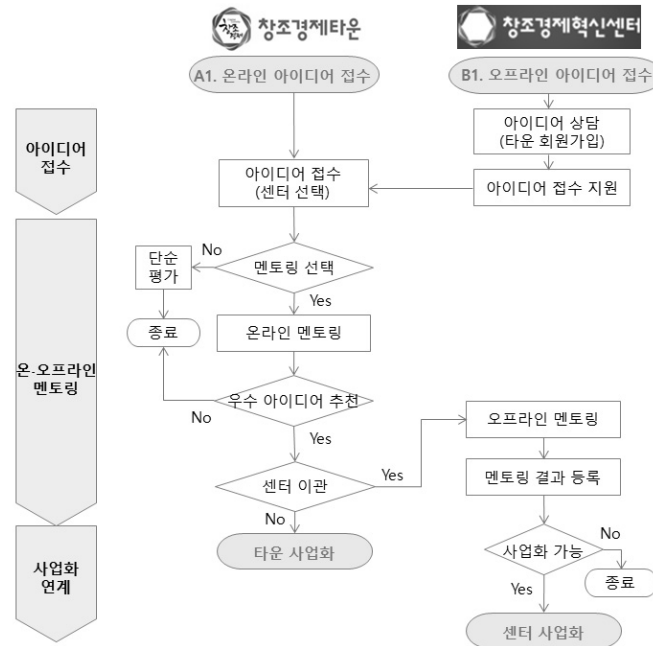
1) 아이디어 접수 및 멘토링 프로세스 연계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아이디어 멘토링을 위해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대기 중인 멘토와의 멘토링을 받아야 하는데, 멘토링 요청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시간 예약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와 같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멘토링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멘토는 멘티가 멘토링 받기 원하는 내용을 알 수 없고, 멘티를 직접 만났을 때 그 제안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동안의 멘토링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멘토링을 받을 때 먼저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 등록하여 1차로 온라인 멘토링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가까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프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아이디어 제안 및 멘토링 프로세스를 온오프라인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멘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아이디어 내용을 온라인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고, 오프라인 멘토링 진행 후 그 결과를 다시 온라인에 등록함으로써 멘토링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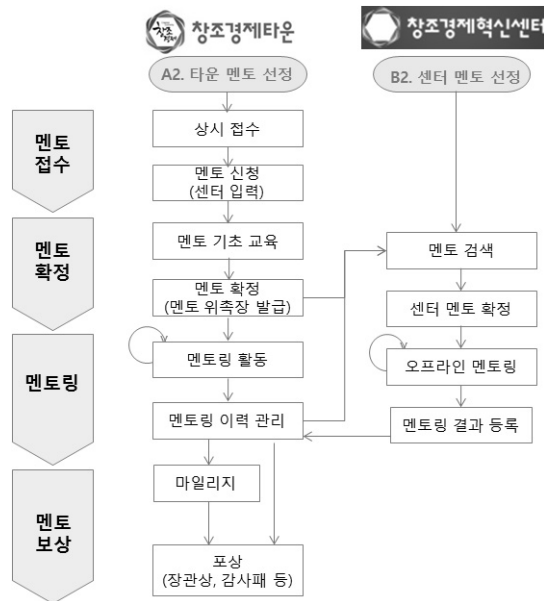
이 때, 현재 아이디어 내용이 부족한 경우나 아이디어 제안자가 멘토링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간단한 아이디어를 단순한 평가 목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 온·오프라인 아이디어 제안-멘토링 연계 방안

2) 멘토 관리 프로세스 연계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멘토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멘토와 오프라인 멘토를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것 보다는, 대규모의 온라인 멘토 풀에서 활동 이력, 평가 등의 정보 확인을 통해 적절한 조건의 멘토를 오프라인 멘토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그림 3). 이와 같이 선발된 오프라인 멘토는 온라인을 통한 멘토 정보, 멘토링 활동, 평가, 교육 이력 등을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멘토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만일, 기존에 오프라인 멘토가 별도로 확보된 경우에는 온라인 멘토 풀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도 활동 및 정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온·오프라인 멘토 연계 방안

III. 결론

이제까지는 온라인 멘토링 위주의 창조경제타운과 오프라인 멘토링 위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별개의 멘토링 프로세스를 운영해 왔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멘토링과 오프라인 멘토링은 장단점이 서로 뚜렷하게 달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데, 아이디어 초기 단계에는 온라인 멘토링이 효율적이고, 구체화된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멘토링이 효율적이다.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분야의 양대 축인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서로 융합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그 융합을 위해 현재의 홈페이지 회원, 디자인, 페이지 링크 등 단순한 수준의 연동을 뛰어 넘는 업무 프로세스 융합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가장 핵심적인 업무 프로세스인 아이디어 제안 및 멘토링 프로세스 연계, 멘토 관리 프로세스 연계가 우선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실제 온·오프라인 멘토링 연계 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멘토링 진행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종합적인 아이디어 및 멘토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것이다.

향후에는 구축된 온·오프라인 아이디어 제안 및 멘토링 데이터베이스 분석,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멘토링 효과 향상 방안, 멘토·멘티 역량 강화 방안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인 온·오프라인 업무 프로세스 융합 방안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원 및 조직 등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체적인 융합 방안에도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김원배 (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과 밀착하고 전시행정 피해야”, 「전자신문」 <http://etnews.com>

(2015.7.22)

박선영 (2013), “아이디어 창업·사업화를 위한 공공/민간의 지원정보 제공 체제연구”, 박선영 외 2인 공저,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10월), 732-741.

송용준 (2015), “창조경제 스타트업(Startup) 실험실”, KAIST See Futures Vol.8

정도범 (2014),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3.0 성과 창출 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정도범 외 2인 공저, (2014.10월), 640-660.

정도범 (2015),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현황에 관한 연구: 창조경제타운의 확산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지」, 정도범 외 3인 공저, 5(4), 37-44.

정철환 (2015), “아이디어만 있으면 OK... ‘온라인 멘토’가 창업까지 돕는다”, 「조선일보」(2015.10.7), 7면.

창조경제타운 (2015.1), “창조경제타운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1.19)

창조경제타운 (2015.9), “아이디어 사업화 창조경제타운에서 길을 찾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9.30)